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질문 우리말 표현에서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었-'으로만 나타내며 '-있었-'을 쓰면 틀린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이은희,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답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영어의 과거완료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과거의 어느 시점에 완결되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음을 암시하는 대과거형이 '-있었-'에 의해 나타납니다. 다음의 예문을 비교해 보면 '-었-'과 '-있었-'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 어제 어머니가 오셨어.

(나) 어제 어머니가 오셨었어.

'-었-'을 쓴 (가)에 비해서 '-있었-'을 쓴 (나)는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하나 더 있었다는 느낌을 주어, 그렇지 않은 (가)와는 구별됩니다. (가)의 문장은 단순히 어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중립적이어서, 어머니가 오셨다가 지금은 이미 가셨을 수도 있고 또 아직까지 머물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나)는 주어진 사건이 완결되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음을, 즉 어머니가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셨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비교하여 우리말에 과거완료 시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는 일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은 모두 과거완료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말에는 그런 의미의 과거완료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즉 외국어 문장을 번역할 때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우리말 문장이 아닙니다. 이는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또는 ‘이미 떠났다’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우리말의 대과거는 과거의 상황보다 한 발 앞선 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있었-’과 관련된 ‘-였-’의 상황이 표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있었-’으로 표현된 사건 뒤에 다른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것을 함축 의미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말에 대과거 표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있었-’이 쓰인 대과거 문장은 ‘-였-’이 쓰인 문장과는 다른 뜻을 가지게 됩니다. (정희원)

물음 ‘말씀’은 ‘말(言)’의 높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말씀은……”처럼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높여 말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이용주, 경북 구미시)

답 존대법은 상대방을 대우하기 위해 청자를 높이거나 화자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는 주로 선어말 어미 ‘-시-’나 종결형 어미에 의해 존대법이 실현됩니다. 그런데 몇몇 어휘들은 높임 또는 낮춤의 형태가 따로 있어서, 대화시 상대방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라 이러한 어휘들을 적절히 선

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지’나 ‘연세, 약주’ 등은 각각 ‘밥, 나이, 술’의 높임말이며, ‘저, 저희’ 등은 ‘나, 우리’의 낮춤말입니다. ‘말씀’의 경우는 대개 ‘말’의 높임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낮춤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지칭할 때는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과 같은 문장에 쓰인 높임말로서의 ‘말씀’과 달리, 여러 사람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도 ‘말씀’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제 말씀은……’ 또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정희원)

물음 “다음 보기 중에서 ○○○ 것을 고르시오.”에서 빈 칸에 들어갈 말은 ‘알맞은\알맞는’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명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답 ‘알맞은’이 맞습니다. 이는 ‘알맞다’가 형용사라는 것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용사와 동사는 관형형 어미를 취할 때 차이를 보입니다. 즉 형용사에 결합하는 현재 관형사형 어미는 ‘-은(ㄴ)’이고 동사와 결합하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형용사인 ‘곱다, 작다’는 ‘고운 꽃, 작은 집’ 등과 같이 활용하고, 동사인 ‘먹다, 잠자다’는 ‘먹는 물, 잠자는 공주’와 같이 활용합니다. 최근 들어 잘못된 형태인 ‘*알맞는’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동사인 ‘맞다’의 활용형 ‘맞는’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용사인 ‘알맞다’는 ‘알맞은 운동, 알맞은 차림새’ 등과 같이 활용하고, 동사

인 '맞다'는 '입에 맞는 음식, 맞는 답'과 같이 활용해서 써야 합니다.

(정희원)

문음 '을지로'의 로마자 표기는 무엇입니까?

(김명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답 '을지로'의 로마자 표기와 관련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표기하는 전사법 체계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글자라도 그 소리가 다르면 달리 적게 됩니다. 예컨대 '감기'에서 첫 음절과 둘째 음절의 첫소리는 모두 'ㄱ'으로 동일한 글자이지만 첫 음절의 'ㄱ'은 무성음이고 둘째 음절의 'ㄱ'은 유성음이므로 'k'와 'g'로 달리 적습니다.(예 : kamgi) 둘째, 'ㅡ'는 'ü'로 적고 'ㅣ'는 'i'로, 'ㅇ'은 'o'로 적습니다. 셋째,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ㅈ'과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ㅉ'은 각각 'ch', 'j'로 적으며 된소리인 'ㅉ'은 'tch'로 적습니다. 넷째, 모음 앞에 오는 'ㄹ'은 'l'로 적고 자음 앞이나 낱말의 끝에 오는 'ㄹ'은 'll'로 적습니다. 즉 '사랑'의 'ㄹ'은 모음 앞에 왔으므로 'l'로 적으나 '발군'의 'ㄹ'은 자음 앞에 왔으므로 'll'로 적습니다.(예 : sarang, palgun) 다섯째,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즉 두 개의 형태소로 구성된 '산불'은 [산뿔]로 소리나지만 'sanppul'이 아니라 'sanpul'로 적습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을지로'를 로마자로 적으면 'Ŭltchiro'가 됩니다. '을지로'의 표준 발음이 [을찌로]이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첫째, ‘을지로’에서 ‘을’의 ‘ㄹ’은 자음 앞에 왔으므로 ‘l’로 적고 ‘로’의 ‘ㄹ’은 모음 앞에 왔으므로 ‘r’로 적습니다. 둘째, ‘을지로’의 ‘지’는 된소리로 소리나므로 ‘tchi’로 적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을지로’에도 해당한다면 ‘Ŭltchiro’가 아니라 ‘Ŭlchiro’로 적어야 하겠으나 ‘을지(乙支)’는 하나의 형태소이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지하철 역명이 ‘Ŭlchiro 3-ga’로 표기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Ŭltchiro 3-ga’로 고쳐 적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자 표기는 주로 지명을 위시하여 인명이나 상호명 등에 쓰이는데, 이들은 보통 고유명사로 간주되고 또 고유명사는 하나의 형태소로 파악되므로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그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말이 하나의 형태소이냐 두 개의 형태소이냐 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여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팔당(八堂)’이나 ‘옥천(沃川)’이 몇 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판단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팔당’이나 ‘옥천’이 “여덟 개의 집(?)”과 “비옥한 내”를 가리킨다기보다 경기도와 충청북도에 있는 한 지명을 가리킬 뿐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하나의 형태소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현재 ‘P’altang’으로 되어 있는 ‘팔당’의 로마자 표기 역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팔당’의 올바른 로마자 표기는 ‘P’alttang’이 될 것입니다.)

한편 ‘을지로’와 ‘팔당’의 현재 로마자 표기를 통해 그 표기 원칙을 귀납적으로 추측해 보면 “형태소가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은 “두 개의 음절이 결합할 때에 나타나는 된소리는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정 당시의 취지가 어떠한 간에 명문화된 것은 “형태소가 결합할 때”라는 것이므로 ‘을지로’는 ‘Ŭlchiro’가 아니라 ‘Ŭltchiro’로 적어야 하고 ‘팔당’은 ‘P’altang’이 아니라 ‘P’alttang’으로 적어야 옳습니다. 굳이 ‘을지로’와 ‘팔당’의 현재 로마자 표기를 고수하려면 먼저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임동훈)

◻ ‘저희 나라’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어서 ‘우리 나라’라고 말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성룡,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 ‘우리’라는 대명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신과 그 주위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여 함께 이르는 것입니다. 아래 예에서 (1)은 ‘우리’의 첫번째 뜻이고 (2)는 ‘우리’의 두 번째 뜻입니다.

- (1) 우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매우 많다. 너희 동네도 그러니?
- (2) 우리 그만 놀고 집에 들어가자. 어머니가 걱정하시겠다.

그런데 ‘우리’는 화자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고 자신과 그 주위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가리키는 경우에만 ‘저희’라는 겸양어가 있습니다. 화자가 자신

과 자신의 집단을 낮춰 말할 수 있으나 청자를 포함하는 집단을 낮춰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위 예문 중에서 (1)은 (1)'에 대응하나 (2)는 (2)'에 대응하지 않습니다. (* 표시는 잘못된 문장이란 뜻입니다.)

- (1)' 저희 동네에는 슈퍼마켓이 매우 많습니다. 선생님 동네도 그러십니까?
 (2) *저희도 이제 집에 들어가시지요. 어른들께서 걱정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 나라'라고 말할 때의 '우리'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저희 나라'라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는 '우리'일까요? 대개의 경우는 한국인인 화자가 한국인인 청자에게 이런 말을 하므로 이때의 '우리'는 청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때의 '우리 나라'는 '저희 나라'로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가상적인 상황이지만 한국인인 화자가 미국인인 청자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그때의 '우리 나라'는 '저희 나라'로 낮추어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의 '우리 나라'도 '저희 나라'로 낮추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같이 큰 집단은 화자인 '나'에 의해 대표될 수 없으므로 이때의 '우리 나라'는 '저희 나라'로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회사'도 '저희 회사'로 낮추어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회사 역시 나라와 마찬가지로 '나'에 의해 대표되기에는 큰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

사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장이 다른 회사 대표나 정부 관리에게 '저희 회사'라는 표현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화자는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나' 일뿐더러 회사 사장으로서의 '나'가 말하는 '우리 회사'는 영어식으로 말하면 '내 회사'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국어에서는 한 개인의 소유나 소속 관계를 나타낼 때 '내 아버지, 내 집, 내 회사'로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우리 집, 우리 회사'로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이 말하는 '우리 회사'에서 '우리'는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임동훈)

㉠ “강력 범죄가 {잇달아, 잇따라} 발생하다”와 “{잇단, 잇따른} 강력 범죄” 중에서 어느 말이 맞습니까?

(인다민, 경기도 고양시 주엽동)

답 '잇따라', '잇따른'이 맞습니다. '잇달다'는 '잇다'와 '달다'의 합성어로서 “이어 달다”라는 뜻의 타동사입니다. 즉 “기관차에 객차들을 잇달다”나 “장군은 훈장에 훈장을 잇단 복장으로 등장하였다”처럼 씁니다. '잇다'가 다른 동사와 합성어를 이룬 예에는 '잇달다, 잇따르다' 외에 '잇닿다, 잇대다'가 있는데 이러한 합성동사의 품사를 결정짓는 것은 후행 동사들인 '닿다, 대다'입니다. 즉 '잇닿다'는 '닿다'가 자동사이므로 자동사이고 '잇대다'는 '대다'가 타동사이므로 타동사입니다. “산줄기가 끝없이 잇달아 있다”나 “책상과 책상을 잇대어 놓다” 따위가 이들 동사들의 용례입니다.

반면에 '잇따르다'는 “뒤를 이어 따르다”라는 뜻의 자동사입니다. 즉 “조문객들이 잇따르다”나 “배 30여 척이 잇따라 부서졌다”처럼 씁니다. 그리

고 ‘잇따르다’는 뜻이 확대되어 “청문회가 끝난 뒤에 증인들에 대한 비난이 잇따랐다”나 “잇따른 범죄 사건들 때문에 밤길을 다니기 두렵다”처럼 추상적인 사건이나 행동이 계기적으로 발생될 때에도 쓰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예문은 자동사가 쓰일 문맥이고, 질문하신 동사는 “이어 달다”라는 뜻이 아니라 “뒤를 이어 따르다”라는 뜻이므로 ‘잇따르다’를 써야 옳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다”와 “잇따른 강력 범죄”라고 써야 옳은 것입니다.

끝으로 이 문제와 관련지어 한 가지 언급해 둘 것은 ‘연달아’입니다. 기존 사전들에서는 ‘연달다’를 ‘잇달다’의 동의어로 처리하고 “연달아 전화가 걸려 오다” 따위를 그 용례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옳다면 “범죄 사건이 잇따르다”에서 ‘잇따르다’ 자리에는 ‘잇달다’가 대신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잇달다’는 “이어 달다”라는 타동사 용법 외에 “잇따르다”라는 자동사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우리말큰사전, 1992>와 <금성판 국어대사전, 1997>의 처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국어대사전, 1982>와 <새우리말큰사전, 1991>에서는 위 두 사전과 달리 ‘잇달다’에 타동사 용법만 인정하고 있어 ‘잇달다’에 자동사 용법을 인정하는 문제는 더 논의를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조선말대사전, 1992>와 같이 ‘연달아’를 부사로 처리하고 ‘잇달다’에는 타동사 용법만 인정하여 ‘잇따르다’와 구별하는 쪽을 택하고자 합니다. 즉 ‘잇달다’와 ‘연달다’의 동의어 처리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잇달다’와 ‘연달다’를 동의어로 처리하면 첫째, ‘잇달다’와 달리 ‘연달다’가 ‘연달아’ 꼴로만 쓰이는 현상을 설명키 어렵고 둘째, ‘잇달다’에 자동사 용법을 인정하

게 되어 '잇달다'와 '잇따르다'의 동의어 관계를 새로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와 용법에 대해 '잇단/잇따른', '잇달았다/잇따랐다' 등의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달아'를 활용형이 아니라 부사로 보면 "한총련 탈퇴 여부 대학가 투표 잇따라"라는 표현에서 '잇따라' 대신에 '연달아'가 쓰이지 못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이점도 있습니다. '연달아'는 "부도 사건이 연달아 터지다"에서처럼 용언 앞에서 그 용언을 꾸미는 용법 외에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에서 우리는 '잇달다'에는 타동사 용법만을 인정하고 '잇따르다'에는 자동사 용법만을 인정하였으며 '연달아'는 활용형이 화석화된 부사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동훈)

㉠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 '반딧불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반딧불이'가 표준어인지 알려 주십시오.

(조인호,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답 '반딧불이'라는 곤충명은 전문 분야에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동물명집>(한국동물학회 1968)에서 '반딧불이(Luciola cruciata Motschulsky), 애반딧불이(Luciola lateralis Motschulsky)' 등이 '반딧불이과(Lampyridae)'로 분류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동물학회에서 곤충명을 '반딧불이'로 정리한 이듬해에 문교부에서 발간된 <한국동식물도감 동물편(곤충류 II)>(조복성 1969)에는 '반디불이(Luciola cruciata Motschulsky)'와 '애반디불이(Luciola lateralis Motschulsky)'를 '반딧불과(Lampyridae)'의 '반디불이속(Luciola

Castelnau)')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원래는 해당 분야에서 '반딧불과'의 '반딧불'로 써왔던 것으로 앞에서 언급한 자료가 간행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한국곤충도감>(김창환 1978)은 '애반딧불(Luciola lateralis Motschulsky)'의 분포도가 실려 있으며, <곤충분류학>(우건석 1988)도 '반딧불과(Lampyridae)'의 '반딧불(Luciola cruciata Motschulsky)'로 썼습니다. 이처럼 해당 분야에서도 곤충명이 잘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겠습니다. 1994년에 한국곤충학회와 한국응용곤충학회가 공동으로 간행한 <한국곤충명집>에서는 <한국동물명집>과 마찬가지로 '반딧불이과'의 '반딧불이'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과'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반딧불잇과'로 써야 합니다.

옛 문헌 자료에는 '반도, 반되, 반디' 등과 '반도불, 반되불, 반디불' 등이 나타납니다. 1880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편찬한 <한불사전>(韓佛字典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에 '반디'와 '반디불'을 각기 '螢'과 '螢火'에 대응시켜 놓았습니다. '반디'는 'ver luisant, mouche luisante, lampyre'라고 하여 곤충명으로 풀이되어 있으나 '반디불'은 'lumiere du ver luisant, mouche luisante'라 하여 불빛뿐만 아니라 곤충명으로도 풀이되어 있습니다. '반딧불'이 곤충명으로도 오랫동안 쓰여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 1920)에서 '반디[螢]'와 '반딧불[螢の光]'을 등재하고, '반디'의 풀이에서 '개똥벌레'를 '반디'의 비어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1936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반딧불[螢]'과 '개똥벌레[螢火]'를 표준으로 정하였습니다. <朝鮮語辭典>(文世榮 1938)에서는 '반디'와 '반딧불'에 뜻풀이를 하고 '개똥벌레'와 '개똥불'을

각기 '반디'와 '반딧불'의 동의어로 처리하였습니다. 비록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반딧불'과 '개똥벌레'를 표준으로 삼았지만, 그 전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로서도 실제 사용 실태가 단순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큰사전>(한글학회 1947-1957), <중사전>(한글학회 1955), <새한글사전>(한글학회 1965/1986)을 비롯하여 근래에 간행된 국어사전 중에서 <새우리말큰사전>(신기철·신용철 1974 초판/1991 수정증보 8판),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1992 초판), <동아새국어사전>(동아출판사 1994 개정판) 등에는 모두 곤충명으로 '개똥벌레'를 등재하여 놓았으며 '반딧불이'는 등재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이후에 간행된 일부 국어사전들에서 '반딧불이'를 등재하였습니다. <금성판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 1991 초판)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94 3판)이 곤충명으로 '반딧불이'를 등재하고 '개똥벌레'를 동의어로 처리하였습니다. <국어대사전>의 경우에 2판(민중서림 1982)까지는 곤충명이 '개똥벌레'로 되어 있었습니다.

'반딧불이'가 한국동물학회, 한국곤충학회 등에서 정한 용어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간행된 국어사전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단 이후 북한에서 처음으로 간행된 <조선말사전>(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1962)은 곤충명을 '개똥벌레'로 등재하고 '반디벌레'를 비표준 어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북한에서 편찬된 <현대조선말사전>(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판), <문화어사전>(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89), <조선말대사전>(사회과학출판사 1992) 등에서는 '개똥벌레'가 사라지고 '반디'가 뜻풀이와 함께 등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말사전>에서 비표준어형으로 처리되었던 '반디

벌레'가 '반디'의 동의어로 처리되었습니다.

〈큰사전〉, 〈중사전〉, 〈새한글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던 '반딧벌레'가 〈우리말 큰사전〉에서 '개똥벌레'의 방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61 초판)에서는 '반딧벌레'가 '개똥벌레'의 동의어로 등재되었다가 '반딧불이'가 등재된 3판부터는 '반딧불이'의 동의어로 되었습니다. 〈새우리말큰사전〉에서는 '반딧벌레'가 '개똥벌레'의 동의어로 처리되었으며, 〈금성판 국어대사전〉에는 '반딧불이'의 동의어로 처리되었습니다. 〈동아새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반딧벌레'는 등재 여부, 표준 어형으로의 인정 여부 등이 사전에 따라 다릅니다. '반딧벌레'가 북한 사전에 '반디벌레'로 등재된 것은 표기법의 차이 때문입니다.

'반디'는 〈큰사전〉에서 '개똥벌레'의 비표준 어형으로 처리된 후에 〈중사전〉과 〈새한글사전〉에서는 등재조차 되지 않았다가 〈우리말큰사전〉에는 '개똥벌레'의 동의어로 등재되었습니다. 비표준 어형으로 처리되었던 것이 사라졌다가 동일한 학회에서 편찬한 사전에 반세기만에 표준 어형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어대사전〉 초판에서는 '반디'를 '개똥벌레'의 동의어로 인정하였다가 2판과 3판에서는 방언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글학회에서 편찬한 사전들에서는 비표준 어형으로 처리되었다가 표준 어형으로 수정되었으며, 〈국어대사전〉에서는 표준 어형으로 인정되었다가 방언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국어사전들에서 정반대로 엇갈리게 수정되었습니다. 다만 두 부류의 사전들이 '반디'를 표준 어형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뜻을 이르지 않고 '개똥벌레'의 동의어로 처리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표준 어형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반디'의 지위가 '개똥벌레'보다 확고하지 않았

다고 하겠습니다.

〈朝鮮語方言の研究〉(小倉進平 1944)와 〈韓國方言研究〉(김형규 1980)에서 조사된 방언 분포를 살펴보면 '개똥벌레'는 경기, 충북, 충남 등에서 확인되는데 비해 '반딧벌레, 반딧불이'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디'는 〈朝鮮語方言の研究〉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韓國方言研究〉에서는 전남 목포에서 조사되었습니다. '반디'는 중부 지방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는 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포함되어 일찍이 표준이 심의되었던 곤충명인데도 그 양상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딧불'과 '개똥벌레'만 표준으로 되고 관련된 단어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사전에 따라서 같은 사전의 판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졌으며, 전문 분야에서는 기존의 어문 관련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곤충명을 새로이 정하여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곤충명으로 쓰인 말로 '개똥벌레, 반디, 반딧벌레, 반딧불, 반딧불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개똥벌레'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표준으로 인정된 이후 대부분의 국어사전에서 뜻풀이를 한 표제어로 등재되어 왔으므로 표준어로 보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반디'와 '반딧벌레'는 방언 분포 등으로 보아 표준어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북한 사전에서 되살려 쓰고 있으며 남한의 일부 국어사전에서 '개똥벌레'의 동의어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반딧불'을 곤충명으로 풀이한 국어사전은 보이지 않지만, 〈한불사전〉에 곤충명으로도 풀이한 것이 확인되고 학계에서도 곤충명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 분야에서 곤충명을 '반딧불이'로 수정하였으며 최근에 언론 매체

를 통하여 '반딧불이'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표준어로서 심의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앞으로 국어심의회에서 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민규)

가나다 전화는 (02) 771-9909입니다.